

【 해외금융 뉴스: 일본 】

북한발 리스크, 일본금융시장 제한적 영향 전망

- 일본의 간 나오토 총리는 북한의 연평도 공격과 관련해 일본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동시에 향후 북한경제에 대한 추가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밝힘.
 - 간 나오토 일본총리는 24일 소집한 비상내각회의에서 북한의 연평도 공격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고조가 일본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기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외에 추가로 독자적인 제재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모든 각료에게 지시함.
 - 이에 따라 각 부처는 만일에 있을 북한의 일본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일본 내 원자력 발전소 경비를 강화하도록 조치하는 등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대책에 착수함.
- 일본정부는 북한발 리스크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차원의 철저한 준비를 다짐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군사적 긴장 진정세, 일본은행의 유동성 확대 가능성, 한국 신용평가등급 유지 등으로 일본의 금융시장 불안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함.
 - 노다 요시히코 재무상은 북한의 도발로 향후 일본 금융시장의 변동성 및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히고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구체적인 정부차원의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함.
 - 전문가들은 일본의 지정학적 위치로 이번 북한발 리스크가 당분간 투자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데는 대체로 의견일치를 나타냄.
 - 그러나 주변국의 공조에 힘입어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고, 상황 악화 시 일본은행의 유동성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와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북한의 포격이 한국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음.

(FujiSankei Business I, 11/25)